조배숙 민평당 대표 "현역 차출 어렵다"

"한석이 아쉬운 마당에…외부인사 영입에 주력"

전남지사 박지원 · 광주시장 천정배 불출마 무게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가 6월 지방선거 현역 국회의원 차출 문제와 관련,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고 밝혀 '현역 불출마'에 무게를 실었다.

이런 기류대로 라면 박지원 의원의 전남지사 출마 등도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 대표는 12일 창당 후 첫 광주 방문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평당 소속 현역 의원들의 지방선거, 특히 광역단체장 출마 여부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면서도 "소속 의원이 14명으로 원내 교섭단체(20석) 구성이 쉽지 않아 고민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교섭단체 구성과 맞물려) 한 석이 아쉬운 마당에 현역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아무래도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석한 이용주 전남도당 위원장이 "(현직 불출마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급히 진화에 나섰으나, 현역 의원의 지방선거행에 대해 조 대표를 비롯해 당내 지도부의 부정적 기류는 넉넉히 감지됐다.

광주·전남에서는 국민의당 분당 사태 후 박지원 의원이 전남지사에, 당내 최다선인 6선의 천정배 의원이나 전국적 인지도를 가진 초선의 김경진 의원이 광주시장에 출마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많았으나, 교섭단체 구성에 발목이 잡혀 출마가 결국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원론적인 이야기다. 민주당과 민평당은 상황이 다르다. 민주당은 1당을 유지해야 국회의장 등 집권여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민평당은 원내 한 석이라도 더 빨리 채워야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국회의원 뱃지 하나 값이 금값 아니냐. 그런 취지의 원론적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내가 전남지사 나간다고 선언한 것도 아니고, 안나간다고 얘기한 적도 없다"며 전남지사 출마 가능성은 유효하다는 뜻을 비쳤다.

박 의원이 조 대표와 배석한 자리에서 "선거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전남은 단 이틀 만에 판세가 확 뒤집힐 수 있고, 전북은 나흘 정도면 뒤흔들릴 수 있다"며 "그래서 광주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로 변화무쌍한 지방선거판의 특성을 강조한 점도 정치적 복선으로 읽힌다.

한편 조 대표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선에 대해선 "출마 의사를 밝힌 분들이 몇 명 있어 공천 방식 등을 논의 중이고, 설 연휴를 계기로 밑그림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 전남지역 선거대책본부 결성 시기로는 "당 정비를 거친 뒤 3월 중순 또는 하순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봉우 기자

원희룡, 설지나 입장 표명

'탈당 後 무소속'에 무게

바른정당 소속 원희룡 제주지사는 12일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설 연휴 지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원 지사는 오는 13일 새롭게 출범하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신당인 '바른미래당'에서 탈당해 무소속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 지사 측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통합 전당대회가 끝나고 설 연휴가 지나면 공식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며 "지사의 최종 결정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최근 자신의 거취 결정에 앞서 참모진들에게 의견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 지사 측 관계자는 "지사는 한국당 복당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다"며 "참모들은 무소속과 신당 잔류에 대해 각각 6대 4 정도의 찬성 비율을 보였다. 탈당 후 무소속으로 있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다수였고 이를 지사한테 전달했다"고 말했다.

앞서 원 지사는 통합 신당과 관련해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며 탈당까지 감행할 수 있다는 뜻을 여러 번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원지사는 무소속으로 출마해 제주지사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일각에서는 원 지사가 무소속을 확정 짓게 되면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을 한 석이라도 더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자유한국당이 더 적극적으로 그의 복당을 설득하고 나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시원섭섭' 安…"바른미래, 원내 유일 캐스팅보터될 것"

지방선거 직접 출마 관련 "거취 생각해본 바 없어"

바른미래당 공식 출범을 하루 앞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당 당 대표실에서 안철수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창당을 하루 앞둔 12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통합 반대파 인사들이 창당한 민주평화당을 향해 "민주당 2중대를 자처했다"고 지적하며 바른미래당이 원내 캐스팅보트 역할을 쥔 유일한 정당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앞으로의 계획 및 포부를 밝혔다.기자들을 마주한 안 대표에게선 편안함이 묻어나보였다.

안 대표는 기존 국민의당이 갈라지면서 국회 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당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저희가 유일하게 결정권을 가진 정당이 될 것"이라며 "민주평화당은 민주당 2중대를 자처했으니까 항상 그쪽 편을 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이어 "사안에 따라 찬성할 것이면 적극 찬성하고 바르지 않은 방향이라면 반대하며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국민의당이 원래 해왔던 일은 저희들만 유일하게 계속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국민의당 대표를 맡은 지난 6개월 간의 소회도 밝혔다.

안 대표는 "대표를 맡은 지 6개월이 채 안됐는데 6년 정도 지난 것 같다"며 "여러가지로 노력한 끝에 통합과정에 들어가게 됐다. 이 통합이 대한민국 정치사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자부한다"며 "첫째로는 전당원이 투표에 의해 통합이 결정됐다는 점, 두번째로는 이제 대한민국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영·호남이 통합된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통합 후 거취에 대해 "저 같은 경우는 한 분이라도 더 많이 함께할 수 있는 통합을 위해 제가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다해서 대표직을 내려놓은 것"이라며 "그렇게 통합을 완성시키는데까지가 대표로서의 제 역할인 것이고 그 다음 선거 승리라던지 통합당 미래를 위한 다른 역할들이 주어지면 열심히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선거 직접 출마에 관해선 "구체적으로 제 거취에 대해 생각해본 바가 없었다"며 "지난 넉달 동안 (통합 추진을) 처음 시작할 땐 불가능일이라 생각했잖나. 결국은 여기까지 와서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직전에 와 있다보니 제가 다른 일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 통합이 마무리되고 새 지도부가 출범하고 나면 고민해보겠다"고 전했다.

오는 13일 통합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강정책 작성과정에서 바른정당 측과 이견을 나타난 것에 대해 안 대표는 "의견 차이가 없는 것은 비정상이다. 서로 합의되는 공통 분모들만 모아서 발표하면 될 일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뉴시스

WSJ "평양올림픽 된 평창올림픽 文대통령 행동 비난 받아 마땅해"

김여정 · 北응원단 호의적 언급 CNN · NBC 비판도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평창 동계올림픽의 승자는 북한이라고 평가했다.

12일(현지시간) WSJ는 '평양올림픽'이라는 제하의 사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유화정책을 쓰는 한국정부와 잘 속는(gullible) 서구 미디어들 덕분에 '감옥국가' 북한이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당시와 버금가는 이미지 변신 홍보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WSJ은 김정은 북한 노동장 위원장의 특사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한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에 주목한 미국언론들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여정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트럼프와 비교한 CNN을 꼬집으며 "김정은의 여동생(김여정)이 동계올림픽을 사로잡았다" "미소와 따뜻한 메시지를 담은 악수로 김여정이 하루 만에 대중의 심금을 울렸다" 등의 보도 내용을 비판했다.

또 WSJ은 북한 응원단을 호의적으로 언급한 NBC뉴스의 트윗 내용을 언급하며, "한 명이라도 줄을 못맞추면, 응원단원들의 가족은 아마도 멋진 산악 전망을 가진 강제노동수용소에 장기체류하도록 보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WSJ은 김여정의 오빠(김정은)가 지난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VX신경제를 사용해 이복형을 살해하도록 명령한 사람이며, 2013년 고모부 장성택을 숙청한 인물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WSJ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주에 벌어진 가식적인 행동에 대해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Mr. Moon deserves much of the blame for this week's charade)"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북한 고위급 대표단을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도록 초청했고, 방북 요청까지 받았다는 것이다.

WSJ은 "북한의 (방북) 제안은 미국과 한국의 관계를 이간질하려는 시도이며, 문 대통령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려는 것이다"라며 "이번 초청으로 김정은이 일으킨 긴장감을 미국탓으로 돌리는 선전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WSJ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치켜세웠다. 매체는 "이번 주말, 위엄있게 행동했던 지도자는 펜스 부통령이었다"라며 "문 대통령이 김여정을 위해 축배를 드는 동안 펜스 부통령은 북한의 탈북민들을 만났다"고 강조했다.

WSJ는 펜스 부통령과 탈북민과의 만남이 북한 응원단보다 취재·보도가 덜 되었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지역공감.미래창조.정론직필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